

인간, 자연 그리고 미래를 위한 “Open Housing”

“Open Housing” for the Human, Nature and Future

박 준 영*
Park, Joon-Young

ABSTRACT

Upon entering the 21st Century, One of the new paradigm of Housing industry in Korea is to accomplish the foundation of Sustainable Building & Environment. It is easy to understand that Building environment in Korea is appearing the phenomenon of rapid conversion from supply-oriented market to demand-oriented market.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a new housing development with "Open Housing" as New Housing System which takes into account durability of housing based on the changeability among Housing-Components, the flexibility of interior space, the remodeling & repairing of housing and the user's needs with variable life-style. This paper also shows the example of Infill-Systems for the Open housing in Korea on the basis of housing situation, experiences for the Open Housing including assembly technique of Infill-Systems.

I. 시작하며

1. 국내 주택의 현안

그 동안 국내 주택정책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주된 수단인 하나로서 주택의 양산화(量産化)를 기본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주택의 절대부족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여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다양화 등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로 부각하면서 국내 전체 사회구조는 소품종·대량생산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공급 지향형 사회”에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품종·소량생산이라는 수요자 중심의 “수요 지향형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체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주택시

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나 선호도 등을 사전에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건설한 일부 주택업계에서는 주택의 미분양이라는 엄청난 인적·물적 손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개인이나 주택업계 등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국가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정책시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내 주택 관련 기술개발은 단기간에 걸쳐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 기술개발 부분-원가절감, 공기·공비 절감 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주택의 내구성 향상 기술이나 장수명화 기법, 주택의 유지·관리, 개조·보수, 리모델링 등을 위한 요소기술, 건축 구성재의 효율적 활용·재사용·재활용 기법 등에 관한 개발에는 극히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 한정하고 있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 공학박사,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표준화팀장

2. 21세기 주택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1) 지속 가능한 건축 및 환경

국제표준화기구(ISO)를 중심으로 한 국제 건축 환경은 개방화, 정보화, 환경친화 등을 기본으로 하여 21세기 건축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로서 지속 가능한 건축 및 환경(Sustainable Building & Environment) 구현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개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건축 관련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인 TC59 (Building Construction)와 국제건축 연구 혁신회의(CIB)¹⁾ 산하 W104(Open Building Implementation)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현재 새로운 건축시스템으로서, 오픈빌딩(Open Building)의 개념과 역할 등의 정립, 요소기술 개발, 단계별 실용화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2) 오픈부품화

건축에 있어서 오픈(Open)이란 폐쇄형과 대별되는 개방형을 의미한다. 오픈부품이란 이러한 개방형의 개념과 건축물을 구성하는 건축구성재(Support & Infill)²⁾가 하나의 유기적인 개방형시스템(Open System)하에서 모듈정합(Modular Coordination)을 바탕으로 일정한 원칙에 따라 조합되어 새로운 역할·건축물·건축공간·건축구성재 상호간의 호환성³⁾ 확보를 바탕으로 건축물을 생

산, 공급, 관리할 수 있는 공업화건축의 전제적인 요소로 작용-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픈부품화(Open Component System)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추진력과 방향성을 지닌 과정(Process)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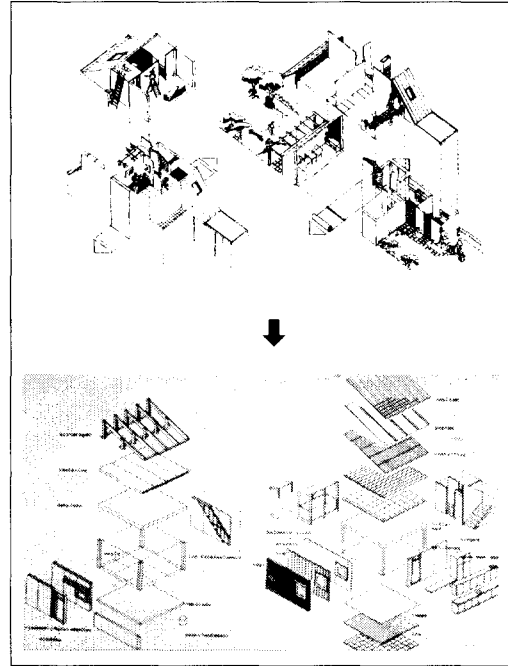


그림 1. 오픈부품화의 개념

따라서 ISO 등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현재 오픈부품화를 위한 새로운 요소기술·모듈정합(MC, Modular Coordination) 설계기법, 시공정합(JC, Job Coordination)을 위한 조합기법(Interface Rule), 유지·관리(MM, Maintenance & Management) 기법 등·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3) 질(質)의 시대

그 동안 국내 주택산업은 건축구성재의 생산, 건축설계 및 시공, 공급이라는 극히 제한적이고 일방향적인 '공급 지향적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 건설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제적인

목표가 된다(박준영, 박사학위논문에서 인용).

1) CIB : International Council for Research and Innovation in Building and Construction, '국제 건축 연구 정보회의'라고도 함

2) Support : 고정적 요소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구조부문을 담당하는 구조체와 설비덕트류를 의미

Infill : 비고정적 요소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Support를 제외한 건축구성재인 내장재, 외장재, 창호, 마감재 등을 의미

3) 호환성(互換性)은 다양성, 적응성, 정합성 등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종합한 개념이며, 건축물·건축공간·건축구성재를 대상으로 하여 치수, 접합부, 성능(質) 등의 확보를 추구한다. 또한 모듈정합(Modular Coordination)을 바탕으로 한 건축물의 오픈부품화와 건축의 개방형시스템(Open System)이 추구하는

건축환경의 변화는 바로 국내 건축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국내 건축환경도 '공급 지향적 사회'에서 '수요 지향적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에 다가서는 시대를 맞이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변화는 바로 국내 주택시장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주택산업은 주택의 절대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양적 확보 위주의 "공급자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적 사고"로의 급속한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4) 인간, 자연을 고려한 장수명 주택

주택의 노후화 정도는 부위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노후화 된 부위의 조기발견과 유지·보수는 주택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거주자의 생애주기(Life-cycle)가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주요요구(住要) 수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활용의 융통성이 확보된 가변형 주택에 대한 개발요구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택의 내구수명이 짧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건축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건설 폐자재 발생,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 등-는 일차적으로 인간과 자연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택시장 자체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등 정성적, 정량적 측면 모두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의 내구성 향상과 거주자의 다양한 변화 요구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형으로서 장수명 주택-공간의 가변성, 유지·관리 및 개조·보수 용이성, 리모델링, 건축구성재의 재사용·재활용 등-에 대한 개발 요구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II. 국내현황

1. 국내 "Open Housing" 적용사례

국내 공동주택에 "Open Housing"의 기초적 개념이 적용된 것은 강변아파트(1970-1971)가 최초로 할 수 있으나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이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공공이나 민간부문에서 간헐적으로 기초적 개념이 활용되었으나 그 적용범위 또한 극히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7년에 정부는 국제 건축환경과의 유기적인 연계성 확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 및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서 건설분야 표준화 장·단기 추진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구성재의 오픈부품화를 기본으로 한 건축의 개방형시스템(Open System)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기술로서 모듈정합(MC)설계지침을 단계별로 개발-벽식공동주택('97), 공공건축물('98), 대규모 산업시설물('00), 라멘조 및 철골조 공동주택('01)-하여 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표 1. 한국의 오픈하우징 적용사례⁴⁾

건설	명칭	비고
1970 ~ '71	강변아파트 (서울 당산)	- Support & Infill - 1999 멸실
1981 ~ '82	주공아파트 (성남 하대원)	- 통합 분리형 주택 (37m ² ·37m ² , 43m ² ·43m ²) - 2000 멸실
1986 ~ '89	주공아파트 (서울 상계)	- 경량벽체
1989 ~ '90	주공아파트 (서울 번동)	- 경량벽체
1987 ~ '88	선경아파트 (부산 구서동2)	- 주문형 주택(단위세대 평면)
1988 ~ '89	선경아파트 (부산 구서동3)	- 주문형 주택(단위세대 평면)
1990	선경아파트 (안산 성포동)	- 주문형 주택(단위세대 평면)
1990	선경아파트 (수원 구운동)	- 주문형 주택(단위세대 평면)
1994	주공아파트 (고양 능곡)	- 수납벽체
2000 ~	삼성아파트 (용인 구서)	- 경량벽체, 수납벽체
2000 ~	삼성아파트 (용인 수지)	- 경량벽체, 수납벽체
2000 ~	쌍용아파트 (부천 상동)	- 경량벽체, 수납벽체

4) "Open Building In Korea"(박준영, Open Building Tokyo 2000, 2000.10)의 Table 3, Present Conditions for the Open Housing Implementation in Korea" 요약 정리.

2. 국내 “Infill-System” 적용사례

주택을 구성하는 건축구성재 가운데서 “Support”를 제외한 “Infill-System”의 적용사례를 조사·분석했던 선협 연구결과⁵⁾를 정리하면, 국내에 이미 건설되었던 대부분의 벽식공동주택에서는 여전히 비구조체 부분의 부품화 또는 건식화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많은 부분에서 “Infill-System”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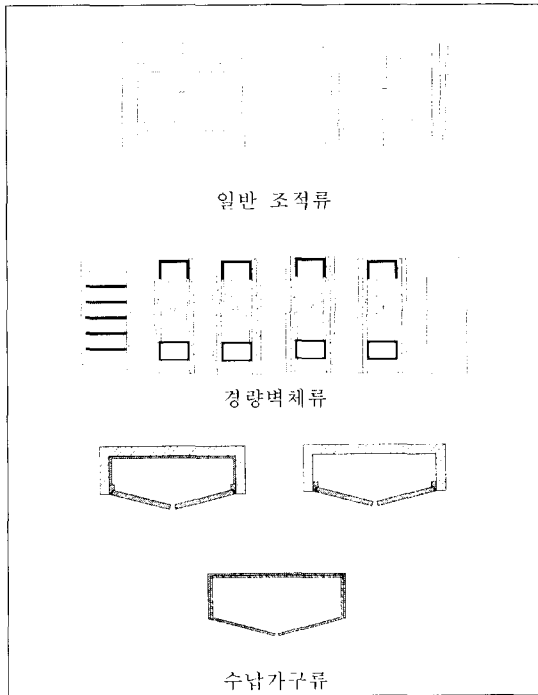


그림 2. Infill-System 적용사례 6)

그러나 기술적 측면에서는 과거 '70~'80년대에 적용했던 일반적인 방법과 크게 상이하지 않음으

로써, “Infill-System”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에서 조적조 방식으로 비내력벽체를 구성하였으나, 경량벽체 (Dry-Wall)가 새로운 벽체시스템의 하나로 도입되어 적용되기도 하였다(그림 2 참조).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서도 부품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부품이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점진적으로 그 적용범위 또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다(그림 3,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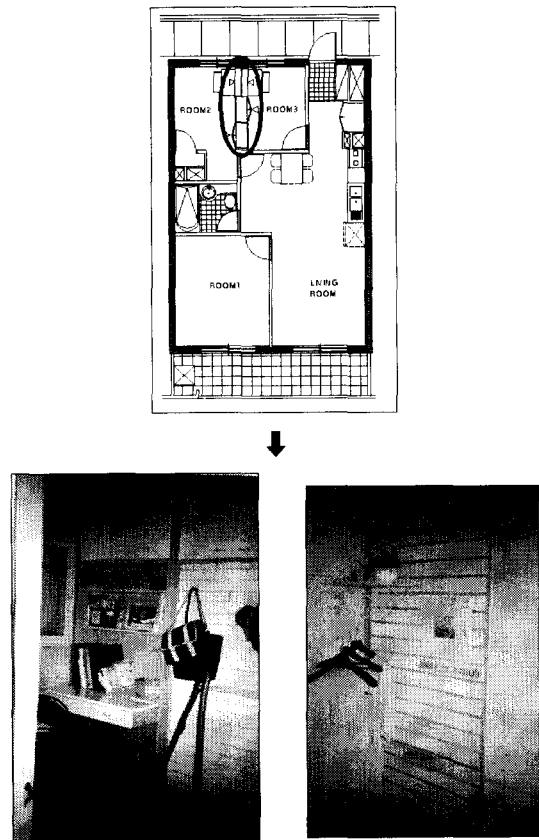


그림 3. 수납벽체 적용 예-1

- 5) 대한주택공사, “공사주택의 경량벽체시스템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Ⅱ), 2001.1” 참조.
- 6) “Open Building In Korea”(박준영, Open Building Tokyo 2000, 2000.10)의 Table 4, Example of Lightweight Wal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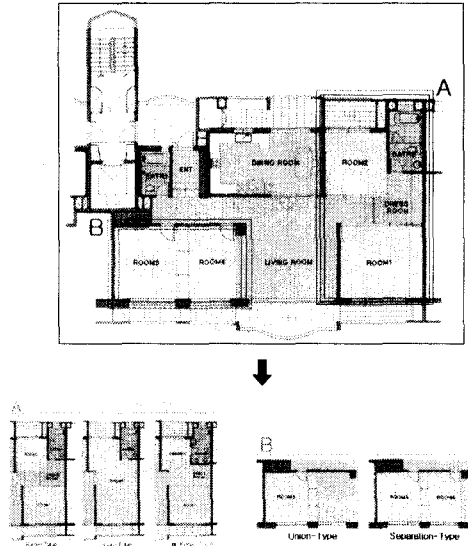


그림 4. 수납벽체 적용 예-2 7)

그 예로서, 그림 3은 대한주택공사에서 '94년 고양 능곡지구의 주공아파트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수납벽체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던 사례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4는 최근 민간아파트에서 수납벽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수납벽체는 수납의 기능과 벽체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건축구성재로서 향후 활발히 적용될 것이라 판단된다.

III. Open Housing

1. Open Housing의 구성요소 및 범위

“Open Housing”은 건축구성재의 생산, 주택설계 및 시공, 주택의 유지·관리 등 건축 관련 분야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개방형시스템(Open System)을 기본개념으로 하며, 호환성(다양성, 적응성, 정합성) 확보를 바탕으로 고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체부분인 Support-System(기둥,

벽, 슬래브, 수직덕트류 등)과 비교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비구조체부분인 Infill-System(경량벽체, 창호, 내·외장재, 전자·전기기기 등)을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한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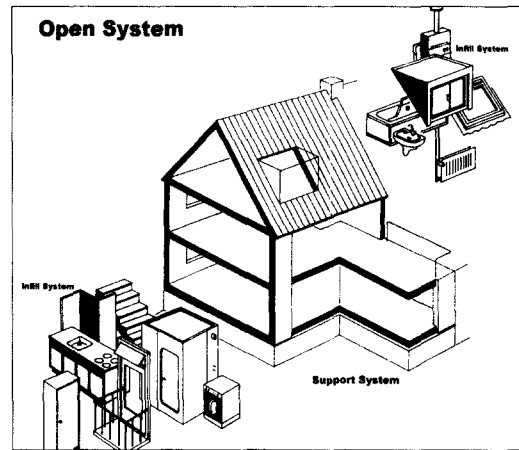


그림 5. Open System 개념도

또한 Open Housing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택산업 전반에 걸쳐 표준화·치수, 성능, 접합부 표준화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기준 등이 필요하며, 주택을 구성하는 건축구성재에 대한 부품화 선행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그리고 설계분야에서는 모듈정합(MC)설계지침과 시공정합을 위한 조합지침(JC)에 따라 다양한 주택-가변성, 기능성, 안전성, 내구성 등의 확보-을 설계하고, 시공분야에서는 설계와의 정합성 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건축구성재를 적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며, 유지·관리분야에서는 주택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택의 내구수명을 향상시켜 “장수명주택”을 구현하는 것이 “Open Housing”이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Open Housing은 “지속 가능한 건축 및 환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의 하나이므로, 물리적, 사회적, 미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주택의 노후화(老朽化), 진부화(陳腐化) 요인을 보수·수선·개수 등의 방법을 통하여 건축물

7) “Open Building In Korea”(박준영, Open Building Tokyo 2000, 2000.10)의 Fig 4, Example of Unit Plan to apply Lightweight Walls 참조.

의 내구성을 향상시켜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도모하려는 리모델링 또한 별개의 개념이 아닌, 광의적 의미에서는 “Open Housing”이 추구하는 범주가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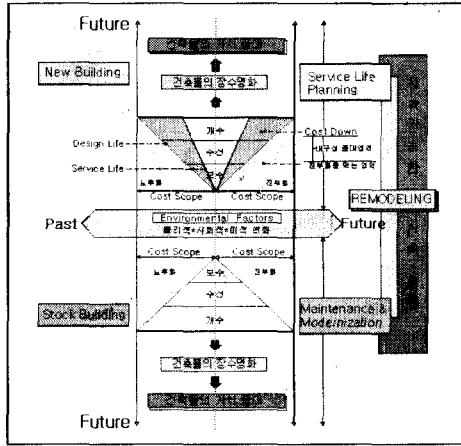


그림 6. 지속 가능한 건축 및 환경 구현을 위한 리모델링⁸⁾

2. Open Housing의 설계 특성

“Open Housing”에 있어서 Support는 주택을 구성하는 건축구성재 가운데서 고정적 요소인 구조체, 덕트류 등을 의미하며, Infill은 비고정적 요소로서 Support를 제외한 모든 건축구성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Support라 하더라도 향후 기술, 기법,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구조체 및 덕트류까지 비고정적 요소로 만든다면 그것은 바로 Infill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으며, 비고정적 요소인 Infill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을 구성하는 건축구성재 가운데서 고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Support의 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8) 대한주택공사, 리모델링에 대비한 벽시공동주택의 기준 설정 연구, 2001. 7. p48, 그림 4-6, “리모델링을 위한 종합구성체계”

따라서 주택을 구성하는 Support와 Infill의 구성비에 의해서도 각국이 지니고 있는 “Open Housing”에 관한 기술, 기법, 시스템 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림 7은 구조체와 덕트류 등을 Support로 할 경우의 “Support-System”에 관한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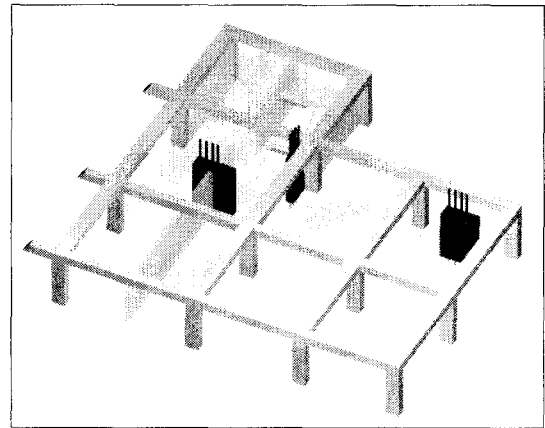


그림 7. Support-System 개념도

그림 8은 거주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을 고려함과 동시에, 내부공간의 가변성 확보를 바탕으로 Infill-System이 Support-System에 조합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9는 Support & Infill-System이 호환성·다양성, 적응성, 정합성·확보를 바탕으로 조합된 “Open Housing”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Infill-System은 조립·해체가 용이한 방식으로 조합할 수 있어서, 향후 건축구성재의 개조·보수·교체·이동 등이 가능하며, 설비시설의 경우 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용이성도 확보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Open Housing”은 주택의 신축을 포함하여 기존 주택의 유지·관리, 개조·보수, 리모델링 등의 용이성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평형이나 동일한 Support-System에서도 거주자의 다양한 공간활용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동일한 Infill-System으로도 다양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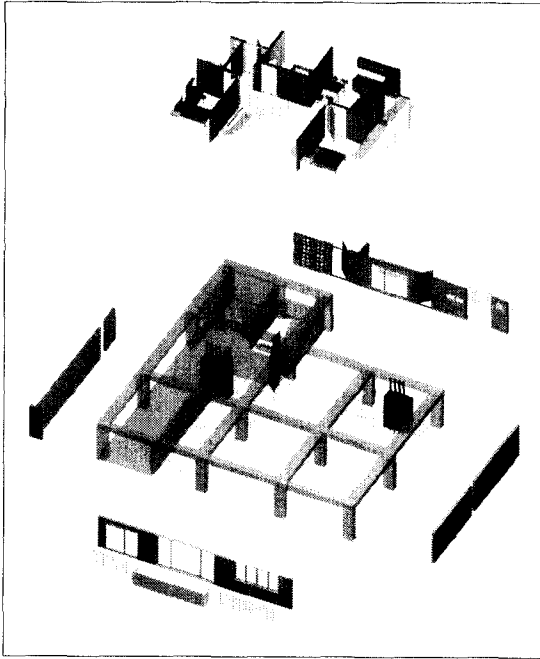


그림 8. Support & Infill-System의 조합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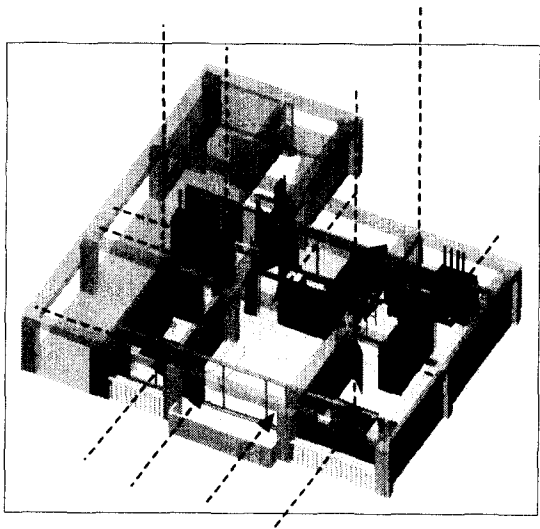


그림 9. Support & Infill-System의 "Open Housing"

3. 우리가 추구해야 할 Open Housing

1) Open Housing과 한옥(韓屋)

Open Housing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다의적이고 다목적 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국만이 지니고 있는 독창적인 문화, 전통, 관습 등을 극히 제한적인 시스템만으로 포용한다는 것 또한 분명한 한계를 노정시킨다고 할 수 있다.

Open Housing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연구개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Open Housing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Support & Infill"은 외형적으로 볼 때 유사한 것 같지만, "Support & Infill"을 활용하여 구성한 실질적인 공간은 자국만이 지니고 있는 문화, 전통, 관습 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Open Housing도 한국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문화, 전통, 관습 등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가 그 동안 도외시하거나 전통건축이라 단정하고 방관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우리 건축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찾아내어 한국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독창적인 Open Housing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개방화된 국제건축환경에서 한국 주택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제고할 수 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건축기술, 기법, 시스템을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판단된다.

또한 주택이 지녀야 할 속성 가운데서 지역적 특성은 주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주거인 한옥(韓屋)은 많은 장점-공간의 상호관입, 상호연계, 공간의 위계성, 자연친화 등을 지니고 있는 반면, 현대주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전통주거의 문양이나 형

태 등을 단순히 모방하려는 표피적인 방법이 아닌, 한국인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문화, 전통, 관습 등을 고려하여 우리의 전통주거인 한옥(韓屋)에서 한국인에 맞는 공간구성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Open Housing의 기본방향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 한옥(韓屋)의 현대적 계승 요소

한국의 전통주거인 한옥(韓屋)의 공간구성 계획 기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의 공간이 다른 공간과 단절되지 않으며,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상호연계되어 있어서 공간의 상호관입과 상호연계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창호 등을 이용하여 공간의 확장 및 분절, 개방공간 및 폐쇄공간 등의 자유로운 구현이 가능하고, 각 상황에 따른 공간감 또한 매우 다양하며, 공간별 위계성이 각각 존재하고 있어서 다양한 공간적 체험 또한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그림 10,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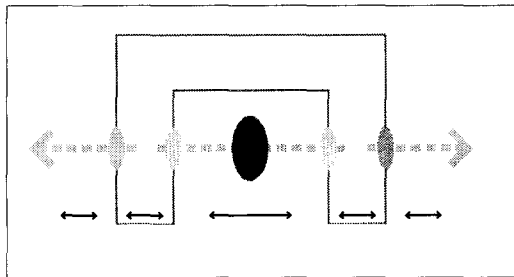


그림 10. 전통주거 공간의 상호관입·상호연계 개념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하나의 예로서 윤증고택을 들 수 있으며, 그림 11과 같이 외부공간과 내부공간, 그리고 다시 외부공간으로 시각적인 축이 유기적으로 연계됨과 동시에, 각각의 공간별 위계성과 개방성 및 폐쇄성 등을 동시에 표출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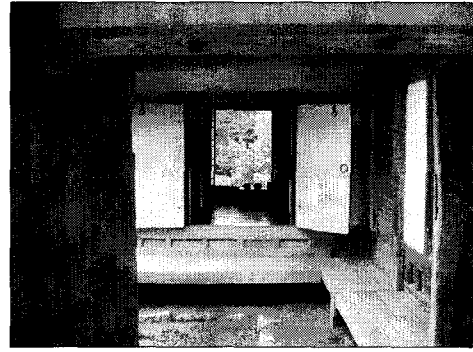


그림 11. 공간의 상호관입·상호연계

그림 12, 13은 들어열개 창호와 여닫이 및 미닫이가 동시에 가능한 창호의 활용 예를 나타낸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개구부의 기능을 담당함과 동시에,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상호관입·상호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건축물과 자연환경과의 공간적이고 시각적인 조화를 실질적으로 구현시키는 매개체로서 내부공간의 확장성, 분절성, 개방성, 폐쇄성 등도 확보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그림 12참조).



그림 12. 전통주거의 들어열개 창호

한편, 여닫이 및 미닫이가 동시에 가능한 창호는 내부공간 사이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기능 이외에도, 공간의 분절과 연속성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그림 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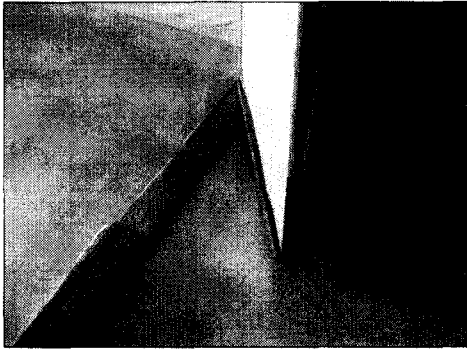


그림 13. 전통한옥의 여단이 및 미단이 창호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전통주거인 한옥(韓屋)에는 공간의 상호관입 및 상호연계, 공간의 확장 및 분절, 공간의 개방성 및 폐쇄성 등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계획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Open Housing은 Support & Infill-System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건축기술, 기법, 시스템 등의 개발과 병행하여, 전통주거인 한옥(韓屋)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계획요소 등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활용할 때 보다 가치있고 독창적인 한국만의 Open Housing을 구현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IV. 종합제언

주택이란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인 동시에 자연 안에 세워지는 건조물이기도 하다. 또한 인간에게 있어서 주택의 의미는 외형적 공간을 초월하여 “가정(Home)”이라는 내면적 의미 또한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이란 인간의 정체성 및 장소성과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고유한 문화,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 볼 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 문화, 전통 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또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제반문

제들을 재인식시킴과 동시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건축환경이 개방화, 정보화, 환경친화 등을 기본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 및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개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한국의 주택산업이 추진해야 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비단 물리적인 주택 개발이 아닌, 인간, 자연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주택개발에 중점을 둔 “Open Housing”의 개념, 구성요소, 범위, 특성 그리고 개발방향 등을 각각 제안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안한 Open Housing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자연을 개발하려는 “Nature In Human”의 개념이 아니라,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Human In Nature”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 고유한 문화, 전통 등을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가 개발해야 할 Open Housing은 현재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다가올 미래에 우리와 삶을 함께 영위하거나 우리의 삶을 영속적으로 이어갈 우리의 후손을 위한 미래주택의 범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박준영, “Developments toward Infill-Systems in Korea”, Open House International, Vol.26 no.3 2001.
2. 박준영, “Open Building In Korea”, Open Building Tokyo 2000 국제심포지엄, 2000.10
3. 박준영, 건축의 개방형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화의 종합구성체계와 모듈정합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 1998
4. 대한주택공사, 리모델링에 대비한 벽식공동주

- 택의 기준설정 연구, 2001.7
5. 대한주택공사, 공사주택의 경량벽체시스템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Ⅱ), 2001.1
 6. 대한주택공사, 부품형 주택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2000.1
 7. Open Building Foundation, Policy plan of the Open Building Foundation, 1997